

정치와 법 선거구 문항 학습 교재



정경대학 다람쥐

- 교재를 집필하면서 -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선거구 학습 교재를 배포한 정경대학 다람쥐(한국교원대 윤준수)입니다. 교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교재을 누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아울러 어떠한 학습 방법을 가지고 교재 학습에 임해야 하는지를 아래에 간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step1. 누가 활용해야 하는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치와 법의 성적을 2등급 이내로 받고자 하시는 분에게 해당 교재를 통한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특강을 듣고 수능에서 선거구 1문제를 맞힌다고 하여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험생이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선거구 문항의 점수는 50점 중 3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선거구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2회독 이상을 하였거나, 학평이나 모평에서 3등급 이내 정도의 성적을 받은 수험생만 해당 교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tep2.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2등급 이내의 성적을 목표로 하신다면, 일단 선거구 문항 풀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학습을 하시면 알겠지만, 정치와 법에서는 간단한 사칙 연산 정도만 풀이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선거구 문항 풀이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선거구 문항 풀이에 대한 기초를 다지실 여러분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아주 기초 개념까지도 교재에 담아두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가원 형태의 선거구 문항을 50문항 정도 제작해보고, 평가원, 학평 문항 포함 150문항을 풀이해보거나 검토해본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교재는 학습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선거구 문항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인 만큼, 초반에는 자주 반복해보고, 후반에는 가끔 복습하면서 시험장에서 선거구 문항을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국어, 수학, 영어에 쓰는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8일 정경대학 다람쥐 윤준수 드림.

목차

(1) 선거구 문항에서 활용되는 단어 모음	006
(2)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007
(3) 의석률과 득표율 – 기초	008
(4) 의석률과 득표율 – 대소 비교	010
(5) 선거 제도 – 선거구제의 기초	012
(6) 선거 제도 – 선거구제와 공천	014
(7) 선거 제도 – 대표자 결정 방식의 기초	018
(8) 선거 제도 – 대표자 결정 방식(다수 대표제)	019
(9) 선거 제도 – 대표자 결정 방식(비례 대표제 기초)	022
(10) 선거 제도 – 대표자 결정 방식(비례 대표제 심화)	024

메모 공간

메모 공간

(1) 선거구 문항에서 활용되는 단어 모음

1. 총의석률 : 전체 의석 대비 각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의 비율 = $\frac{\text{해당 정당의 의석수}}{\text{총의석수}}$
2. 득표율 : 전체 득표수 대비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 = $\frac{\text{해당 정당의 득표수}}{\text{총득표수}}$
3. 지역구 의석률 : 지역구 의석으로 한정하여 계산한 의석률 = $\frac{\text{해당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text{지역구 의원 정수(定數)}}$
4. 비례 대표 의석률 : 비례 대표 의석으로 한정하여 계산한 의석률 = $\frac{\text{해당 정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text{비례 대표 의원 정수(定數)}}$
5. 정수(定數) : 갑국 의회가 8명을 정원으로 할 때, 8은 정수(定數)라고 한다.
6. 정수(整數) : 2.75에서 정수(整數)는 2이고, 4.24에서 정수(整數)는 4이다. 이처럼 소수로 표현되는 숫자에서 소수점 전의 자연수(1, 2, 3, ...)를 정수(整數)라고 한다. 5와 동음이의어로 헷갈릴 수 있지만, 문항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분하여 이해하게 된다.
7. %(퍼센트) : 백분위. 쉽게 말해서 100으로 나누었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득표율을 %로 표시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는데, 26%는 $\frac{26}{100}$, 41%는 $\frac{41}{100}$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유권자 :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국민과는 대비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권을 가지는 유권자가 된다.
9. 투표율 : 전체 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비율 = $\frac{\text{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text{전체 유권자 수}}$
10. 무소속 의원 :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회 의원을 의미함.
11. 공천 : 각 정당이 지역구에 후보자를 출마(선거에 입후보하도록)시키는 것. 1인 공천이 자주 출제되지만, 2인 공천도 나름 비중있게 출제됨.
12. 합당 : 두 개의 정당이 합쳐 하나의 정당으로 활동하는 것.
13. 과반 : 절반을 '초과'하는 것. 100의 절반은 50이지만, 100의 과반은 51임.(절반을 넘는 수치이므로)
14. 병립형 비례 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만 배분하는 선거 제도
15. 연동형 비례 대표제 : 정당 득표율과 총의석률을 연동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 정당 득표율로 할당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 의석을 인정하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음.
16. 초과의석 : 할당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경우 초과된 의석도 그 정당의 의석으로 인정해 줌. 이 경우 총의석수는 증가하므로, 의석률 계산 시 '분모'에 유의해야 함.
17. 봉쇄조항 : 군소정당(의석수가 적거나 없는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정당에만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미함.

(2)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직접 선거	- 유권자가 자신이 직접 한 표를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해야 함.
비밀 선거	-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보통 선거	-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함.
평등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가 가지는 <u>표의 개수를 동등</u>하게 함.(형식적, 절대적 평등) ☞ 지역구 간 인구 편차로 인해 ‘지역구 간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이 떨어짐. (실질적, 상대적 평등)

<개념 파고들기 >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해외에 머무르거나 거주하고 있더라도 대사관 등에 방문하여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1인 1표제를 채택하였는데, 1인 1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한 경우 그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에 1표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투표를 하는 경우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지지 정당이 일치하는 사람’과는 달리 ‘무소속 의원에게 투표’하거나,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지지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간의 실질적 표의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 지역구 간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선거)

좌측의 표가 갑국의 지역구와 지역구 내 유권자 수를 나타낸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지역구 1, 3은 유권자 수가 100명인 반면, 지역구 2, 4는 200명이다. 이러한 경우 지역구 1, 3에서 유권자 한 명의 표는 전체 표에서 ‘1/100’ 만큼 차지하는 반면, 지역구 2, 4에서는 ‘1/200’ 각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 문제’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은

지역구 1 (100명)	지역구 2 (200명)
지역구 3 (100명)	지역구 4 (200명)

“표의 가치는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에 반비례한다. (음(-)의 관계가 있다.)”

한편, 과거 기출에서는 지역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지역구의 유권자 수가 다른 지역구의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두었는데, 이는 ‘**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3) 의석률과 득표율 - 기초

step1. 개념 이해하기

의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의석 대비 각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의 비율 - 분수로는 $\frac{\text{해당 정당의 의석수}}{\text{총의석수}}$ 로 표현할 수 있음.
득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득표수 대비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 - 분수로는 $\frac{\text{해당 정당의 득표수}}{\text{총득표수}}$ 로 표현할 수 있음.

step2. 개념 쉽게 적용해보기

예제 1. 각 지역구에서 1명씩 선출된다고 할 때, (가)~(라)에 들어갈 숫자를 적으시오. (의석률 구해보기)

갑국의 의회는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5인으로만 구성된다. 다음은 최근 선거 결과이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표)

구분	A당	B당	C당
지역구 1	50	30	20
지역구 2	25	60	15
지역구 3	45	25	30
지역구 4	10	30	60
지역구 5	10	50	40

위 선거 결과에서 각 지역구 순서대로 선출되는 당선자 소속 정당은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A당, B당, A당, C당, B당의 후보자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합계
의석수(석)				5

위 선거 결과를 토대로 의석률을 구해보자. A당은 5석 중 (가)석을 획득하므로, A당의 의석률을 위 식에 따라 구하면 (가)/5가 된다. 이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text{가})/5 \times 100 = (\text{나})\%$)로 표현할 수 있다. B당은 A당과 지역구 의석수가 같으므로 의석률이 같으며, C당은 5석 중 (다)석을 획득하므로, C당의 의석률을 위 식에 따라 구하면 (다)/5가 된다. 이때 C당의 의석률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text{다})/5 \times 100 = (\text{라})\%$)로 표현할 수 있다.

(가) : (나) : (다) : (라) :

예제 2. 다음 자료를 분석할 때, (가)~(마)에 들어갈 숫자를 적으시오. (득표율 구해보기)

갑국의 의회는 비례 대표 5인으로만 구성된다. 다음은 최근 정당 투표 결과이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표)

구분	A당	B당	C당	합계
득표수	500	300	200	1,000

선거 결과를 토대로 득표율을 구해보자. A당은 전체 득표수 $\boxed{(가)}$ 표 중 $\boxed{(나)}$ 표를 획득했으므로, A당의 득표율을 위 식에 따라 구하면 $\boxed{(나)} / \boxed{(가)}$ 이 된다. 이를 %(퍼센트)를 단위로 하여 백분율로 나타낸다면, $(\boxed{(나)} / \boxed{(가)}) \times 100 = \boxed{(다)} \%$ 가 된다. 한편,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을 %(퍼센트)로 나타낸다면 B당은 $\boxed{(라)}$ %, C당은 $\boxed{(마)}$ %가 된다.

step3. 개념 뒤집어보기

예제 1. 다음 자료를 분석한 후, 아래 표의 네 칸에 들어갈 각 정답의 지역구별 들판수를 각각 채우시오.

(득표율로 정당별 득표수 구하기)

각국의 의회는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50명으로만 구성된다. 다음은 최근 선거 결과이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 표)

구분	A당	B당	C당	총득표수
지역구 1	50	30	20	100
지역구 2	25	60	15	200
지역구 3	45	25	30	300
지역구 4	10	30	60	450
지역구 5	10	50	40	270

(단위 : 표)

구분	A당	B당	C당
지역구 1			
지역구 2			
지역구 3			
지역구 4			
지역구 5			

(4) 의석률과 득표율 - 대소 비교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다면 국민의 의사보다 적은 의석률을 차지하여 과소 대표되고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높다면 국민의 의사보다 많은 의석률을 차지하여 과대 대표된다. 이는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 교육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이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데, 주로 득표율과 비교했을 때 의석률이 더 높은지 또는 낮은지가 출제되고 있다.

step1. 개념 이해하기

(1) 과소 대표와 과대 대표

과소 대표	-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낮은 경우
과대 대표	-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은 경우

(2) 득표율과 의석률의 대소 관계 비교

득표율과 의석률이 모두 %(퍼센트) 단위인 백분율로 제시된 경우, 단순히 숫자의 크고 작음으로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의석률이나 일부 득표율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의석수’나 ‘전체 득표수’가 100과 같은 쉬운 숫자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대소 비교가 너무 쉬운 경우이거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의 감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ㄱ. 통분을 하여 분모를 맞춘다.

A당이 차지한 의석수가 전체 13석 중 4석이고, 득표율은 35%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의석률은 $4/13$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득표율은 %(퍼센트) 단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분수로는 $35/100$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4/13$ 에는 10을 곱하고, $35/100$ 에는 1.3을 곱하면, 득표율은 $40/130$, 의석률은 $45.5/130$ 이 되므로, 의석률이 더 커 과소 대표됨을 알 수 있다.

ㄴ. 분수의 특성을 활용해 곱하여 산출한다. (추천 방법)

A당이 차지한 의석수가 전체 13석 중 4석이고, 득표율은 35%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의석률은 $4/13$, 득표율은 $35/100$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의석률의 분자와 득표율의 분모를 곱한 값과 득표율의 분자와 의석률의 분모를 곱하여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숫자가 너무 크다면 약분한 후 적용!)

$$\begin{array}{ccc} \text{의석률} & & \text{득표율} \\ \frac{4}{13} & \cancel{\xleftarrow{\quad}} & \frac{35}{100} \\ & \cancel{\xrightarrow{\quad}} & \\ 400 & < & 455 \end{array}$$

∴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높다.(화살표 방향 따라서!)

step2. 개념 쉽게 적용해보기

예제 1. 다음은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각 정당의 과소 대표, 과대 대표 여부를 판단하시오.
(단, 과소 대표와 과대 대표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판단함.)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5인으로만 구성된다. 다음은 최근 선거 결과이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표, %)

구분	A당	B당	C당
지역구 1	30	40	50
지역구 2	20	70	50
지역구 3	30	50	10
지역구 4	80	10	30
지역구 5	50	20	40
정당 득표율	45	35	20

A당 :

B당 :

C당 :

D당 :

<개념 파고들기>

○ 1인 2표제(정당 투표의 존재)일 때 과소/과대 대표의 기준은?

평가원에서는 지역구 의원만 있거나, 지역구 의원 투표를 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1인 1표제)에는 득표율의 기준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과소 대표’ 또는 ‘과대 대표’라는 말로 물어보고 있다. 이와 달리 별도의 정당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1인 2표제)에는 ‘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높다/낮다’라는 식으로 선지에서 물어보므로, 이에 대한 혼동은 실제 평가원 문제 풀이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현행과 개편안 모두에서 의석수는 같으나 의석률이 다른 경우

어떤 한 정당의 의석수가 같더라도 총의석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의석률이 감소하는데, 주로 의회 의원 정수(定數)를 증가하는 개편이거나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의 개편에서 발생한다. 평가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석수는 그대로이지만 의석률이 낮아지는 경우를 활용한 함정을 두게 되는데, 문제 풀이 시 의회 정수(定數)의 증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선거 제도 - 선거구제의 기초

지금부터는 선거 제도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선거 제도는 먼저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후 선거구제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으며, 대표 결정 방식에 따라 비례 대표제와 다수 대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다수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다수 대표제로 다시 분류된다. 해당 분류를 명확히 하고 학습에 돌입해야지만, 선거 제도 학습에 혼동이 없을 것이다.

step1. 개념 이해하기

소선거구제	의미	- 선거구별로 대표자 1인만을 선출하는 선거구 제도
	장점	- 선거 관리와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함.
	단점	-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이 많음.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어려움. - 의회 내 다양한 의사 반영이 어려움.
중·대선거구제	의미	- 선거구별로 대표자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구 제도
	장점	-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이 적음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함. - 의회 내 다양한 의사 반영이 용이함.
	단점	- 선거 관리와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어려움. -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의 발생 - 균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 혼란 우려

-> 소선거구제는 간편한데 소수 정당의 진출이 어렵다는 것, 중·대선거구제는 복잡한데 소수 정당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사실 외울 것은 진하게 맙출 친 하나의 내용밖에 없다.

-> 쉽게 생각하자. 두 가지를 두고 장, 단점을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의 장점은 어느 하나의 단점이라는 것이다.

<개념 파고들기>

○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서 2명의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할 때, A당 소속 후보자가 60표로, B당 소속 후보자가 30표로 당선된다면, B당 소속 후보자는 A당 소속 후보자보다 30표를 덜 받고도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러하다.

○ ‘선거구 내’ VS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 문제

중·대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는 같은 당선자임에도 더 적은 표를 받고 당선된다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선거구의 유권자 수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반면, ‘선거구 간 당선자의 표의 등가성 문제’는 선거구 간 유권자의 수에 차이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표 자체에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선거구제와 관계없이 유권자의 수 차이만을 이유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민주 선거의 원칙 중 평등 선거의 원칙과 관련 있는 것이다.

step2. 개념 쉽게 적용해보기

예제 1. 다음 자료를 분석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갑국의 의회는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10인으로만 구성되며, 각 지역구에서 동일한 인원만큼의 의원이 득표순으로 선출된다. 다음은 최근 선거 결과이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표)

구분	A당	B당	C당
지역구 1	50	30	20
지역구 2	25	60	15
지역구 3	45	25	30
지역구 4	10	30	60
지역구 5	10	50	40

위 선거 결과에 따르면 각 정당의 의석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합계
의석수(석)				5
의석률(%)				

한편, 갑국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제도는 ()이다.

<개념 파고들기>

○ 지역구의 개수와 지역구 의원 정수(定數)의 관계

지역구의 개수와 지역구 의원 정수(定數)가 같다는 것은, 선거구 제도가 지역구별로 1명의 대표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라는 것을 내포한다. 한편, 지역구의 개수보다 지역구 의원 정수(定數)가 많다는 것은, 선거구 제도가 지역별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을 내포한다.

(6) 선거 제도 – 선거구제와 공천

공천은 각 정당이 지역구에 후보자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천은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지역구에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할 수도, 2인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도 있다. 평가원은 최근들어 공천 인원 수를 통해 선거구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을 아래에 제시한다. 단, 3인 이상의 공천의 경우 출제 가능성에 현저히 떨어지므로, 2인 이상 공천으로만 설명하고자 한다.

step1. 개념 이해하기

1인 공천	의미	- 선거구별로 후보자 1인만을 공천하는 것.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역구별 1인의 후보자만 당선되므로, 모든 정당은 1명의 후보자만 공천하게 된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모든 정당이 1인의 후보자만을 공천하는 경우 전체 지역구 의석수 중 ‘1/(지역구별 선출 인원)’만큼 차지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에서 <u>하나의 정당은 전체 의석 중 최대 절반까지만 의석 획득이 가능하다.</u>(과반 X)
2인 이상 공천	의미	- 선거구별로 후보자 2인 이상을 공천하는 것.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선거구제에서는 2인 공천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u>일부 정당이 n인의 후보자만을 공천하는 경우 전체 지역구 의석수 중 ‘n(공천 인원수)/(지역구별 선출 인원)’만큼 차지할 수 있다.</u>

step2. 풀이와 실전적 연결하기

※ 2인 공천 시 최소 의석수와 최대 의석수

만약 정당이 2인이 당선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2인을 공천할 수 있는 경우, 각 정당의 최소 의석수와 최대 의석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 1) 1등 정당은 최소 1석을 획득하므로 ‘O 표시’를 한다.
- 2) 남은 한석에 대한 획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시한다.
 - ㄱ. 1등 정당의 득표수 절반을 넘는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 2등 정당에 ‘O 표시’를 한다.
 - ㄴ. 1등 정당의 득표수 절반을 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등 정당과 2등 정당 모두에 ‘V 표시’를 한다.

최소 의석수 : ‘O 표시’를 모두 더한 값, 최대 의석수 : ‘O 표시’와 ‘V 표시’를 모두 더한 값

※ 의석률, 득표율, 선거구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각 정당이 어떠한 선거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의석률은 (선거구별 선출되는 인원과 최대 공천 인원이 같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text{최대 의석률} = \frac{\text{선거구 별 최대 공천 가능 인원}}{\text{선거구별 선출 인원}}$$

이때 선거구별 선출 인원은 사실상 선거구제와 연결되므로, 우리는 위와 같은 관계를 통해 의석률, 득표율, 선거구제 중 2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 하나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최대 의석률은 분수꼴로 표현된 위 식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1) 선거구제 (ㄱ. -> ㄴ. 순으로 풀이할 것.)

- ㄱ. 해당 관계를 활용하기 전 선거구 수와 의원 정수를 먼저 비교한다.
 - 지역구 의원 수 = 선거구 수 : 소선거구제
 - 지역구 의원 수 > 선거구 수 : 중 · 대 선거구제로 확정된다.
- ㄴ. 선거구 제도 : 1인 공천만 가능한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 존재하는 경우 : 소선거구제로 확정
 -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몰루? (확정을 지을 수 없음)

2) 공천 인원(소선거구제라면 어차피 1인만 공천 가능할 것이므로 중 · 대 선거구제만 따짐.)

1인만 공천할 수 있을 때로 산출한 최대 의석률보다 실제 의석률이 높은 정당이

- 존재하는 경우 : 2인 이상 공천
-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몰루? (확정을 지을 수 없음)

step3. 개념 적용하기

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현재 갑국의 의회는 5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된다.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하며,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구 후보 중 한 명에게만 투표한다. 그리고 선거구별 선출 의원 수는 같다. 갑국은 현재의 선거구 수는 유지하되 현행 선거구제인 (가) 을/를 (나) 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 경우 (가) 로는 갑국에서 한 정당이 지역구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었지만, (나) 에서는 가능하다. 더불어 선거구제 변경과 함께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선거구 전체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비례 대표 10석을 추가하려 한다. 이와 같이 갑국이 선거 제도를 변경하면 의회 전체 의석수는 변경 전 의석수의 1.5배가 된다. 다음은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1	30	35	25	10
지역구 2	30	45	10	15
지역구 3	40	20	30	10
지역구 4	25	40	28	7
지역구 5	75	10	7	8

* 모든 선거구의 유권자 수와 투표율은 동일하다.

** 선거 제도 변경 후에도 정당 공천 후보 수와 유권자 투표 방식은 동일하다.

- ① (가)는 (나)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 ③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은 과대 대표되었지만, C당은 과소 대표되었다.
- ④ 갑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비례 대표 배분 방식은 평등 선거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직접 선거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비례 대표 모르면 풀자 마세요~~~)
- ⑤ 개편안에 따르면 A당과 B당의 의석수는 동석이 된다. (~~비례 대표 모르면 풀자 마세요~~~)

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갑국은 현재 6개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6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지역구 1	60	80	40	20	200
지역구 2	50	0	10	40	100
지역구 3	30	80	60	30	200
지역구 4	70	80	50	0	200
지역구 5	40	50	0	10	100
지역구 6	200	0	0	0	200
합계	450	290	160	100	1,000

*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차기 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의석 정수(定數)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 결과만을 근거로 차기 선거 결과를 판단한다.)

<1안> 선거구 1-2, 3-4, 5-6을 통합하여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당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선거구에서 2인까지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

<2안> 선거구 모두를 통합하여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며, 정당의 득표 비율에 의석 정수(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 ① A당의 경우 현행은 2안보다 유리하다. (~~비례 대표 모르면 2안은 판단하지 마세요~~~)
- ② B당의 경우 현행은 1안보다 불리하다.
- ③ C당의 경우 현행보다 1안이, D당의 경우 현행보다 2안이 유리하다. (~~비례 대표 모르면 D당은 판단하지 마세요~~~)
- ④ A당이 1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와 2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동일하다. (~~비례 대표 모르면 2안은 판단하지 마세요~~~)
- ⑤ 1안에서 B당은 과소 대표되고, 2안에서 C당은 과대 대표된다. (~~비례 대표 모르면 2안은 판단하지 마세요~~~)

(7) 선거 제도 – 대표자 결정 방식의 기초

대표자 결정 방식은 대표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아이면 단순하게 대표자로 결정할 수도 있고, 과반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을 넘어야만 대표자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의 자리를 할당할 수도 있다. 앞의 두 경우는 다수 대표제, 마지막의 경우는 비례 대표제라고 하는데, 각각의 개념을 상세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큰 분류로 따쳤을 때 둘 다 대표자 결정 방식임을 놓치지 말도록 하자.)

step1. 개념의 기초 다지기

다수 대표제	의미	- 다수의 득표를 받은 사람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제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기준 없이 1표라도 더 받으면 대표자로 결정하는 다수 대표제를 ‘상대 다수 대표제’라고 한다.- 특정한 기준(일반적으로는 과반 득표 획득)에 부합해야지만 대표자로 결정되는 다수 대표제를 ‘절대 다수 대표제’라고 한다.- ‘절대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는 선거 제도로는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가 대표적이다.
비례 대표제	의미	- 정당의 의석률이 득표율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제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 대표제는 비례 대표 의원을 별도로 선출하기 위한 ‘병립형 비례 대표제’와 정당 득표율과 총의석률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병립형 비례 대표제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원 정수(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우선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한 석씩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전체 의회 의원 정수(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우선 할당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한 석씩 할당한다. 이후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이 경우 할당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다면 초과 의석이 인정되어 전체 의회 의석이 증가할 수 있다.

(8) 선거 제도 – 대표자 결정 방식(다수 대표제)

다수 대표제는 ‘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대표자 결정 방식이다. 이러한 다수 대표제는 ‘단순히’ 다수의 표를 받으면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적인 기준’을 넘는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절대 다수 대표제’가 있다. 한편, 절대 다수 대표제처럼 보이는 단순 다수 대표제가 존재하는데, 이에 유의하도록 하자.

step1. 개념 이해하기

상대 다수 대표제	의미	- ‘상대적으로’ 다수의 득표를 받은 사람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제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기준 없이 <u>1표라도 더 받으면 대표자로 결정되는 제도</u>이다. - 절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과다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절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 개표의 효율성(시간적·금전적)이 높다.
절대 다수 대표제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절대적인 기준</u>’을 넘어 다수의 득표를 받은 사람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제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인 기준은 일반적으로 ‘<u>과반 이상의 득표</u>’를 의미한다. - 상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과다 발생 가능성이 낮다. - 상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 개표의 효율성(시간적·금전적)이 낮다. - 절대 다수 대표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가 있다. <p>1) 결선 투표제는 첫 번째 투표(1차 투표)에서 <u>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있다면 해당 후보자를,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없다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투표</u>(2차 투표)를 진행하여 더 많은 표(어차피 2명 중 한 명 선출이라 과반이 자연스럽게 도출 됨.)를 받은 후보자를 대표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p> <p>2) 선호 투표제는 후보자에 대한 <u>지지 순위에 따라 표를 배분하여 ‘과반 득표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선되는 제도</u>이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순위를 순서대로 표시한다. 이후 개표 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후보자를, 그렇지 않은 경우 1순위 표를 가장 적게 받은 최하위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가 다음으로 높은 순위로 기재한 후보자에게 표를 준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여 <u>과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의 발생 시 해당 후보자를 대표자로 결정하는 제도</u>이다.</p>

step2. 개념 다지기

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 단체는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한다. 후보자는 갑~정이며, 유권자(A~K)의 후보자 선호 순위는 <자료 1>과 같다. 단,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으며, 전체 유권자는 항상 이 선호 순위에 따라 모든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1순위 선호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 최다 득표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되는데, <자료 2>의 1안 또는 2안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자료 1>

<○○ 단체 유권자별 후보자 선호 순위>

후보자 \ 유권자	A	B	C	D	E	F	G	H	I	J	K
갑	1	1	1	1	2	2	4	4	4	3	4
을	2	2	2	3	1	1	1	3	3	2	2
병	4	3	3	2	3	4	2	1	1	4	3
정	3	4	4	4	4	3	3	2	2	1	1

* 선호도가 가장 높은 후보자가 1순위, 선호도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4순위임.

<자료 2>

1안: 유권자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시하여 투표하며, 선호 순위에 따른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된다. 선호 순위별 점수는 1순위 4점, 2순위 3점, 3순위 2점, 4순위 1점을 부여한다.

2안: 유권자는 1순위 선호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을 후보자로 하는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결선 투표에서 유권자는 2인의 후보자 중 선호도가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하며,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된다.

- ① 현행 제도에서는 사표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1안에서 선호 순위 합계 점수가 높은 후보자부터 나열하면 을, 갑, 정, 병이다.
- ③ 1안과 달리 현행 제도는 한 번의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 ④ 현행 제도는 다수 대표제, 2안은 비례 대표제에 해당한다.
- ⑤ 1안과 2안에서 선출되는 대표자는 동일하다.

* 다람쥐의 Question! - 1안은 절대 다수 대표제인가요?

2. 다음 자료를 분석한 후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변형)

○○ 단체는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한다. 후보자는 갑~정이며, 유권자(A~K)의 후보자 선호 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유권자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시하며, 1순위 표를 집계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 1인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소 득표자는 탈락하고, 이 후보자의 표를 다음 순위로 표시된 후보자에게 넘겨서 집계한다. 이 과정을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단,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으며, 전체 유권자는 항상 이 선호 순위에 따라 모든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한다.

<○○ 단체 유권자별 후보자 선호 순위>

유권자 후보자	A	B	C	D	E	F	G	H	I	J
갑	1	1	1	1	2	2	4	4	4	3
을	2	2	2	3	1	1	1	3	3	2
병	4	3	3	2	3	4	2	1	1	4
정	3	4	4	4	4	3	3	2	2	1

* 선호도가 가장 높은 후보자가 1순위, 선호도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4순위임.

1) 첫 번째 탈락자는 누구이며,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어느 후보자에게 가는가?

2) 두 번째 탈락자는 누구이며,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어느 후보자에게 가는가?

3) 최종적으로 과반 득표하여 대표자로 결정된 후보자는 누구인가?

<개념 파고들기>

○ 절대 다수 대표제로 보이는 상대 다수 대표제

1번 문항의 1안의 경우 절대 다수 대표제 중 선호 투표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개편안은 절대 다수 대표제가 아닌 상대 다수 대표제이다. 절대 다수 대표제는 절대적인 기준을 넘어선 득표자를 대표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위 문항의 1안은 점수 산출로 단순히 ‘상대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선출’하는 대표자 결정 방식이기에 그렇다.

○ 결선 투표제는 반드시 두 번의 투표를 거치는가?

결선 투표제는 과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9) 선거 제도 – 대표자 결정 방식(비례 대표제의 기초)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대표자 결정 방식으로, 비례 대표 의원만을 별도로 선출하기 위한 ‘병립형’과 정당 득표율과 총의석률이 비례하는 ‘연동형’으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다.

step1. 개념 이해하기

병립형 비례 대표제	의미	- 비례 대표 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비례 대표제
	특징	- 정당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원 정수(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우선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의미	- 정당 득표율과 총의석률의 비례성을 위한 비례 대표제
	특징	- 정당 득표율에 전체 의회 의원 정수(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우선 할당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한 석씩 할당한다. 이후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이 경우 할당된 의석수 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다면 초과 의석이 인정되어 전체 의회 의석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되지 않는다.

<개념 파고들기>

○ 초과 의석?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따르면,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할당한다. 다만, 어떤 정당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아 비례 대표 의석이 매우 적지만 특정 지역에서 많은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는 경우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래의 1)과 2) 중 하나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석을 배분할 수 있다. (단, 평가원 단위 시험에서는 아직 1)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 1) 할당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경우 초과 의석을 인정하되, 비례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 2) 특정 조정 지수를 활용하여 의석을 재배분한다.

step2. 개념 적용하기

1. 다음 자료에 따라 A~D당의 의석수를 구하시오. (병립형)

갑국 의회는 비례 대표 의원 40인으로만 구성된다. 비례 대표 의원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석 정수(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초>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정당 투표 득표율(%)	37	27	15	21	100

*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A당 :

B당 :

C당 :

D당 :

2. 다음 자료를 분석한 후,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병립형, 연동형 복합 문제)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60인과 비례 대표 의원 40인으로 구성된다. 비례 대표 의원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석 정수(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지역구 의석률(%)	40	30	20	10	100
정당 투표 득표율(%)	46	24	19	11	100

*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한편, 갑국은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되,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은 인정하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초과 의석으로 인해 의원 정수(定數)는 늘어날 수 있다.

1) 현행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수(석)				
비례 대표 의석수(석)				
총의석수(석)				

2) 개편안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할당 의석수(석)				
지역구 의석수(석)				
비례 대표 의석수(석)				
총의석수(석)				

3) 의석률 유불리

의석률이 높아진 정당(개편안 유리)	현행과 개편안에서 의석률이 동일한 정당	의석률이 낮아진 정당(개편안 불리)

4) 일반적으로 위 선거 제도 개편안이 현행 선거 제도에 비해 가지는 장점에 대하여 1가지 서술하시오.

(10) 선거 제도 – 대표자 결정 방식(비례 대표제의 심화)

앞서 우리는 비례 대표제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만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 대표제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의석을 할당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다만, 이외에도 비례 대표제에서 출제되었던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해당 파트에서는 이들 개념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step1. 개념 이해하기

권역별 비례 대표제	의미	-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 대표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비례 대표제의 기초’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 <u>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 대표제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높다.</u>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므로)
봉쇄 조항 (비례 대표 의석 획득 제한 조항)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득표율과 총의석률의 비례성을 위한 비례 대표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쇄 조항은 비례 대표 선출로 인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평가원에서는 주로 병립형과 결합하여 출제하였다. - 일반적으로 ‘일정 조건’이라고 함은, <u>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투표 득표율이 활용된다.</u> - 봉쇄 조항으로 인해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u>봉쇄 조항을 충족한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율 합을 분모로 하는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 또는 총의석을 할당한다.</u> - <u>봉쇄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소규모 정당이 비례 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우므로</u>, 봉쇄 조항이 없을 때에 비해 봉쇄 조항이 있을 때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낮은 경향성이 있다.(경향성상 그렇다는 것일뿐이다.)
지역구 의석률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 의석률에 비례 대표 의석 또는 총의석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률과 비례 대표 의석 또는 총의석이 비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지역구에서는 (특히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하는 지역구) 일반적으로 소규모 정당이 선출되기 어려우므로,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산출되는 방식에 비해 소규모 정당에게 불리한 할당 방식이다. - <u>평가원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고 있는데</u>, 이는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는 다소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step2. 개념 적용하기

1. 다음 자료를 분석한 후,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변형, 권역별 비례)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8명으로,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가 동일한 8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로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갑국은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4개 선거구(가 1~가 4)는 ‘가 지역’에, 4개 선거구 (나 1 ~ 나 4)는 ‘나 지역’에 있다. 표는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을 나타낸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

선거구	정당	A당	B당	C당	D당
가-1		40	20	5	35
가-2		40	15	15	30
가-3		65	20	10	5
가-4		55	25	10	10
나-1		15	15	30	40
나-2		5	30	25	40
나-3		10	15	25	50
나-4		30	20	0	50

*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차기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 제도 개편안 검토 시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1안>	선거구 가 1-가 2, 가 3-가 4, 나 1-나 2, 나 3-나 4를 통합하여 선거구를 4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
<2안>	‘가 지역’과 ‘나 지역’을 각각 1개의 선거구로 만들고, 각 선거구에서 4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유권자는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해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행사하며, 각 선거구별 의석을 해당 선거구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각 선거구의 정당 득표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1) 현행 결과

A당 : B당 : C당 : D당 :

2) <1안>

A당 : B당 : C당 : D당 :

3) <2안>

구분	A당	B당	C당	D당
가 지역 비례 대표 의석수(석)				
나 지역 비례 대표 의석수(석)				
총의석수(석)				

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3년 4월 학력평가 15번, 봉쇄 조항)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17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은 8명이고, 비례 대표 의원은 9명이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2인의 의원을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며, 각 정당은 선거구별 1인의 후보자를 공천한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은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한다.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단, 의석 할당 정당은 전체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의미한다. 표는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 결과를 나타낸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

선거구 (유권자 수)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비례 대표 의원 선거 결과			
	A당	B당	C당	D당	A당	B당	C당	D당
가(500명)	30	40	20	10	40	30	20	10
나(1,000명)	30	10	40	20	30	20	40	10
다(1,000명)	40	30	20	10	40	20	30	10
라(500명)	40	20	10	30	40	30	20	10

$$* \text{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 (\%) = \frac{\text{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text{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 합}} \times 100$$

**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보기>

- ㄱ.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이 문제가 발생한다.
- ㄴ. A당의 총의석률은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다.
- ㄷ. D당의 총의석수는 2석이다.
- ㄹ. B당과 달리 C당은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과 비례 대표 의석률이 같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메모 공간

집필진

윤준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재학)